

분재로

관광객 맞이해요

체험으로

신안 섬 자생 '천선과나무' 매력속으로

흑산도 등에 분포... 희귀식물 郡, 3년간 연구 관광 상품화

신안군이 섬 지역에 자생하고 있는 천선과나무를 분재로 상품화 하기로 했다. 수형별 50여종을 만들어 재배한 결과 분재로서 보급 가치가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다양한 모양의 천선과 분재.

희귀식물로 알려진 천선과는 대량번식을 위해 이른 봄 3~4월에 가지를 잘라서 삼목하면 잘 살고 줄기가 유연해 2년 후 분재화할 수 있다.

천선과는 무화과와 같이 단맛이 있고 독이 없어 생식 또는 물에 달여서 복용하면 위암, 인후암, 선암, 자궁경부암, 방광암, 폐암, 목의 통증, 치질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안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주민에게 천선과 대량번식 방법과 분재 만드는 기술을 이전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관광 소득사업으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나주 목사 머물던 내아에서 하룻밤을

투숙객 4년만에 9000여명 다도·널뛰기·투호놀이 등

나주시 목사내아(牧使內衙)가 관광객들에게 숙박 예약을 받은 지 4년여만에 투숙객만 9000여명을 돌파했다.



지난 20일 오후 목사내아를 찾은 관광객들이 투호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목사내아(牧使內衙)는 조선시대 행정 책임자인 목사가 머물던 관사로, 조선시대 전국 25개 목(牧) 가운데 관사가 남아 있는 것은 나주가 유일하다.

또 숙박 이외에도 다도(茶道)와 널뛰기, 투호놀이를 비롯한 민속체험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체험객이 꾸준히 늘고 있는 목사내아는 8월말까지 주말예약이 완료된 상태다.

김관영 문화체육관광과장은 "목사내아는 목사가 살던 집으로 좋은 기(氣)가 넘치는 숙박체험 공간으로 인스몬이 나서서 이 용객들이 늘고 있다"며 "괘뚜어를 비롯한 전국적인 홍보와 함께 우리시의 대표 관광 상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 윤림산방 매일 개방한다

휴가철 휴관 없이... 1시간 연장 오후 7시까지

진도 윤림산방(사진) 등 일부 문화관광 시설이 휴가철을 맞아 연장 개방한다. 22일 진도군에 따르면 대표 관광지인 윤림산방, 소전미술관, 해양생태관 등 일부 문화 관광시설에 대해 23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한시적으로 휴관 없이 매일 개방한다.

관람 편의를 제공하고 '국가명승 제80호'인 윤림산방과 신비의 바닷길, 세방낙조, 관매도 답사 등 연계 관광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남도전통민속관에서는 서예, 한국화를 비롯한 회화 양식의 합숙선 작품 전시회인 '바람을 담다' 전시회와 부채 채색하기, 울금 염색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로 마련했다.

'광양중마 우림필유' 분양조건 변경 혜택

잔금 20% 1년6개월 유예 광양시 마동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광양중마 우림필유' 아파트가 분양조건을 변경해 분양중이다. 우림필유는 7월부터 계약금 1000만원에 잔금 20%는 광양 최초로 최대 1년6개월 유예 혜택뿐 아니라 저금리로 중도금 대출 등의 조건을 변경해 분양하고 있다.

이 지역 최고 명문고인 광양제철고가 바로 인접해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광양지역은 인구유입이 꾸준히 늘고 있으나 주택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등 다른 지방도시와는 주택시장 여건이 크게 달라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한편 3.3㎡당 분양가가 평균 500만원대인 광양 중마 우림필유는 전용면적 기준 84㎡형(공급면적 115㎡) 723세대, 118㎡형(공급면적 151㎡) 80세대 등 총 803세대 규모로 현재 75% 분양이 진행됐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집·직장서도 발급

전남도, 내달 2일부터 '민원24' 시행 앞으로는 집이나 직장서 '민원24'를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한 데 이어 8월 2일부터는 민원24를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직접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과 사무실에서 인터넷 '민원24'를 통해 발급하는 것으로 사전에 음면등을 방분해 이 용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민원인은 필요 시 '민원24'에 접속해 공인인증서와 복합인증(전화 또는 보안토큰)을

거쳐 신분확인을 한 후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작성해 발급증을 출력, 수요기관에 제출하면 수요기관에서 이를 온라인상으로 확인해 활용한다. 수요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시도·시군구) 본청으로 제한되며 2016년에는 공공기관과 지방공사, 2017년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최영열 전남도 종합민원실장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법적 효력이 같아 집이나 직장서 민원24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제도"라며 "많은 도민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남도 '녹색 식생활교육 시범학교' 운영

24일까지 도내 참가 희망학교 신청 전남도는 성장기 학생의 올바른 식습관을 위해 9월부터 도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녹색 식생활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키로 하고 오는 24일까지 도내 참가 희망학교 신청을 받는다. (사)식생활교육 전남네트워크(대표 노희경)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올해 정부의 '학생 대상 식생활교육사업' 국비에 산 지원에 따라 추진된다. 시범학교는 전남도 내 45개 초등학교를 공모 방식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학교에선 식재료 구입·체험활동비 등 식생활 교육경비를 지원받아 하반기 중 10시간 이상의 식생활 교육 수업을 실시하게 된다. 학교에서 급식과 영양교육을 전

담하는 영양교사 주도로 학교급식과 연계해 추진되며 학생들은 가정·학교에서 실천 가능한 다량하고 올바른 식생활 방법을 교육받는다. 시범학교 운영에 앞서 전남도는 도내 전 학교에서 체계적인 식생활교육을 할 수 있도록 8월 중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체계화된 표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시범학교 운영을 희망하는 도내 초등학교는 24일까지 3일간 식생활교육 전남네트워크(hkro@dsu.ac.kr)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061-330-322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한국 갯벌체험 왔어요' 中 초·중학생 41명 장흥서 특별한 3박4일 백나무 숲으로 조성, 관광객들로부터 각광을 누리고 있는 역불산 '우드랜드' 소금찜질방에서 숙박하고 목공예센터와 전시관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이 밖에도 지난 5월 중국 요녕성 선양에 거주하는 조선족 한국 상인회를 비롯한 70여명의 시범 관광단이 장흥을 찾았으며, 오는 26일부터 8월1일까지 열리는 '정남진 물 축제' 기간에는 흑룡강성 아성구 관계자들이 장흥을 찾은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장흥의 매력적인 관광지

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향후 장흥과 중국과의 폭넓은 관광 교류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 세일글 "투자 유치·일자리 창출 총력" 박은호 나주시장 게 대립하는 사안들이 많아 어려움도 있었지만, 동고동락을 같이하며 자신이 맡은 책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신임부시장(56)은 고흥 출신으로 1983년 공직에 입문해 지방공무원 교육원과 관광문화과, 행정지원과, 투자정책국 투자기획과장과 기업도시과장을 거쳐 서울투자유치사무소장을 역임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